

# LG-D, 최고 터치 LCD 패널 개발

풀HD급 21.5인치 광터치 방식 채용 ... 멀티터치 가능에 코스트 낮아

LG디스플레이는 풀HD급 21.5인치 광(光)터치 방식의 모니터용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을 개발했다고 5월18일 밝혔다.

광터치 방식은 패널의 모서리 부분에 장착한 적외선 센서가 터치 입력도구를 촬영하듯 인식하는 것으로, 멀티터치에 용이하고 대형패널에 적용해도 비용 증가가 적은 장점이 있다.

터치 입력도구로는 손가락은 물론 손뼉, 펜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신제품은 기존 패널보다 1개 많은 3개의 적외선 센서를 최초로 채용해 최고수준의 터치 성능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CD 모듈에 센서를 내장하는 설계 단순화를 통해 휘도를 약 10% 개선하고 무게를 1kg가량 줄였고, 테두리 폭과 패널 두께는 기존 제품보다 각각 45%, 20% 가량 준 11mm, 20mm로 한층 슬림화됐다.

특히, 모니터용 패널제품으로는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7 Touch Logo 인증>을 획득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10년 3/4분기부터 신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한편,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터치패널 시장규모가 2008년 21억달러에서 2011년 5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억달러에 불과했던 10인치 이상 대형 터치스크린 시장이 2011년 8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8>